

'고창만의 친절·미소·헌신 꽃 피울 것'

전북도민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제56회 전북도민체전 기간 경기장과 고창지역 곳곳에서 손님을 맞이할 자원봉사자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고창군은 11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제56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따뜻한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앞서 고창군은 제56회 도민체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공개모집을 통해 자원봉사자 359명을 선발했다. 이번 자원봉사자 중 최고령은 김종균(78) 어르신이고, 최연소는 이예립(14) 학생이다.

이들은 빛나는 미소로 선수단과 관중 등 대회를 방문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 가장 완벽한 자원봉사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체전 기간 동안 경기장 편의제공, 질서유지, 교통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 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전주MBC라디오 '두시N불지' 생방송으로 진행돼 자원봉사자 자기 자랑과 축하가수 공연까지 곁들여 화합의 장이



고창군은 11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제56회 전북도민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따뜻한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환영사에서 "자원봉사자는 행사의 얼굴이자 고창의 자랑스러운 대표선수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 밝은 웃음으로 고창은 물론 도민체전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자원봉사의 자력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100년 전 상해 임시정부 체험콘텐츠에 '관람객 호평'

LX공사 광화문 체험부스 방문 잇따라

100년 전 상해임시정부와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날 수 있는 AR·VR체험 부스가 재미 뿐 아니라, 역사적 교훈까지 선사하며 시골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어 화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11일, 군산시 옥서면 소재 초등학교를 초청한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광화문광장에서 성황리에 운영 중인 AR·VR 체험부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X가 공사가 동지를 틀고 있는 전북지역 미래인재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지역발전 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옥서면에 위치한 옥봉초

등학교 학생 57명을 초청해 이했다. 특히, 100년 전 상해임시정부와 역사적 인물들을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통해 만나보고 임시정부 자금조달 미션, 백범과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LX체험부스는 오는 20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실제 현지측량을 통해 취득된 상해 임시정부청사의 3차원 데이터와 철저한 고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번 체험 콘텐츠는 체험하는 재미는 물론 역사적 교훈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VR·AR 역사 콘텐츠는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국가보훈처와 교육기관 등에 기증되어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학생들에게 알리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창학 사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LX가 마련한 체험부스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기쁘다"며, "제작된 콘텐츠는 우리 학생들이 임시정부수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학생들의 '교양 있고 균형 잡힌 삶' 증진

전주대, 비교과 프로그램 다채

전주대학교는 학생들의 '교양 있고 균형 잡힌 삶' 증진을 위해 전공·교양과목 외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대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도 문예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그라피, 요가, 심폐소생술, 컬러테라피, 지역 문화 체험 등 학생들이 강의실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취미와 소질을 찾고 영성인성, 의사소통, 자기개발, 창의융합, 협력 등 핵심역량을 키우게 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강사가 위촉되어 운영된다. 정규교과 시간 외에 별도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채료비, 수강료도 지원되어 전주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시간이나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자신만의 개성과 진로도 발견한다. 컬러테라피 수업에서 퍼스널 이미지와 컬러,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고, 요가 수업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일상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

전주대 김수정 학생(국어교육과)은 "예전부터 캘리그라피에 관심 있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다"며,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생활도 영위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전주대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 하정 교수는 "취업이 최고의 목표가 된 요즘,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의실 안·밖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키우고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학생 성공(Student Success)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혁신을 추진하여 전공교육뿐만 아니라



교양, 융합, 비교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균형 잡힌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비교과 영역에서는 문·예·체(CAP, Cultural, Art, Physical Activity)를 포함하는 역량과 학생들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교과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비인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및 학습 지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경찰, 학교폭력예방 토래치인리더 육성 견학 체험 실시

남원경찰서는 지난 10일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는 토래치인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견학 및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 올바른 112신고방법교육 및 교통순찰차와 사이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토래치인리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응 요령 및 토래치인기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음

▲유현길(전주시 공보담당관실 주무관) 조부상= 빈소: 김제 새만금정례식장. 발인: 12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지: 서남권 추모공원, 연락처: 010-7760-9155(유현길)

결혼

▲이종원(박점순씨 장남)·전미희(최해석 진안군산림조합장·채혜선씨 차녀)양= 일시: 13일(토) 낮 12시, 장소: 진안북부미산 마이톤 농촌 테마파크
▲김순호(김상복 익산경찰서 정보과·홍문자씨 장남)·조후리(조성원·이미례씨 장녀)양= 일시: 20일(토) 오후 1시, 장소: 익산 공웨딩 1층 에메랄드홀(익산시 무왕로 1024-17)
▲민경현(민관기·마성순씨 아들)·정은진(정신기 전북중앙신문 부사장 딸)양= 일시: 20일(토) 오후 2시30분, 장소: 전주 효자동 오벨리스(구 웨딩케슬) 2층 러브홀릭 홀

익산경찰, 아동지킴이 어르신 학생 선도보호 예방 활동

익산경찰서(서장 박현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올해 초 선발한 아동지킴이 어르신 100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학생 선도보호와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초부터 본격적인 근무에 돌입 2개월째를 맞고 있는 어르신들의 움직임은 기성 경찰관 못지 않은 열정으로 어린이 보호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구석 구석을 누비고 다니며 체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킴이 어르신들의 활동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아이들두고 있는 부모 심정에서 볼 때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책임감을 갖고 유니폼을 입고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놓고 감사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평화지구대 소속 조규수 어르신은 "손녀 손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전했다. /익산=정인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도내 시·군 단위 마을에서 각 사무소 주관으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농관원은 지난 수년 간 '깨끗한 농업·농촌만들기 운동(CAC, Clean Agriculture Campaign)'을 통해 농촌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도내 시·군 단위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마을가꾸기 활동 등을 추진한 바 있다.

11일에는 전주 효자동 원상림마을에서 전북농관원 직원 및 마을주민 40여명이 마을 입구에 영산홍 300여주를 심고, 폐영농기계 수거 및 마을환경 개선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영태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인간 존엄 가치 인권경영 조직문화 강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인권경영 조직문화를 강화한다.

재단은 11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과 인권경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인권경영 선언식을 가졌다.

태권도진흥재단 인권경영 선언문에는 ▲국제 기준 및 규범 존중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지역주민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고객 인권보호 등 총 10개 항목을 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직원들 대상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정읍시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모의훈련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량 배포되는 해킹메일과 관련해, '랜섬웨어(Ransomware)' 감염과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모의훈련에서 정상 메일로 위장한 해킹 메일을 직원에게 발송, 해킹 의심 메일을 열람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했다. 특히 해킹 메일에 노출됐을 경우 즉시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확산방지를 위한 PC의 인터넷 연결 해제와 백신검사 등 위기 상황 대응 능력도 점검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무진장소방서, 자율대처능력 향상 화재안전리더 교육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주민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관계자 대상으로 화재안전리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로 화재발생 시 인근세대로 연소 확산이 빠르고 단지 내 조정시설과 보안시설 강화로 소방차량의 현장진입 시 시간적·공간적 제약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화재 초기에 자체 공동대응과 대피가 중요하다.

이에, 무진장소방서는 장수군 타워팰리스아파트·주공아파트 등 대상으로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은 화재발생 시 화재안전리더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개별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환강기를 활용한 대피시설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 지역경찰과 교통안전 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 교통관리과는 지난 8일 무풍면사무소, 10일 적상면사무소에서 해당 지역경찰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척 무척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과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리고, 경운기 및 트랙터 등 운행 차량에 대해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경찰, 노인복지회관 교통안전 교육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11일 임실읍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창출 어르신 120여명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기주 교통관리계장은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주제로 야간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걸다)과 이륜, 경운기, 자전거 등 차종별 안전운행에 대해 사고사례와 예방수칙을 동영상 활용 홍보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주현 서장은 "임실은 65세이상 인구가 30% 이상으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해 교통안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